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AI·스마트 농업' 거점 육성

미래농업 이끌 플랫폼...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 삼산면 평활리 100ha 규모 조성...기후변화대응센터 내년 착공

해남군이 조성중인 농업연구단지가 AI(인공지능)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육성된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약 100ha 면적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연구단지를 조성 중이다.

특히 농업연구단지는 단지내 조성중인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아우르는 실증·연구단지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적응과 AI·스마트농업, 저탄소·탄소중립, 기후 인력양성 등 연구와 실증, 보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농업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확장

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공모에 선정된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내년 착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전담기관으로 농업연구단지의 실증·연구기능과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는 인공지능(AI)와 스마트농업의 첨단기술을 집약한 농업연구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농업연구 1단지는 고구마연구센터와 고구마 육종 연구동,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 등이 운영에 돌입했다.

고구마 스마트농업 실습장과 마늘 조직배양 시



해남군이 조성중인 농업연구단지 조감도.

실, 민간 스마트농업단지 등의 시설과 함께 근무자 및 연구자, 농업인을 비롯해 전국의 방문객 등을 위해 숙소 및 편의시설, 교육 연수시설 등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연구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집하장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종자 및 과수 생산·실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활한 기업 입주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또 해남군은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기업·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 분야 R&D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계수확용 품종개발과 AI·스마트 발작물 농기계 개발,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품종선택(종자)에서부터 AI·스마트농업과 저탄소·탄소중립 제배기술의 보급, 수확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를 관리하는 농업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연구단지를 단순한 시험포장이 아니라 연구·실증·보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 농업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활용하고 혁신하는 R&D 필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추석 연휴 기간 동부·청호·중앙식료시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목포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목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 내 동부시장, 청호시장, 중앙식료시장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는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4곳이 선정되며 전라권 최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동부시장, 청호시장, 중앙식료시장에서 열리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역시 같은 기간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에서 진행되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동일한 환급 기준이 적용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및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지원 시기와도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적극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문화와 예술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전국 기초단체 중 예산 비율 1위

신안군이 문화와 예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조성 사업을 필두로 피아노 축제, 삼막 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역사·자연이 조화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각 섬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발전시키고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의 문화예술 투자 규모는 압도적이다. 군은 지난해 전체 예산 8772억원 중 409억원(4.66%)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 1위를 기록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문화 선진국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신안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

국가적 문화 재정 축소 흐름 속에서도 신안군의 과감한 문화예술 투자 기조는 지방소멸 위기를 문화로 돌파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피아노 섬 축제 공연.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문화와 예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추석 연휴 '진도개 Dog스포츠' 공연

3~9일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진도개 Dog 스포츠 특별 공연'을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진행한다.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행사에서는 진도개 장애물 경주(어질리티)와 진도개 달리기가 진행된다. 진도개 강아지와 교감할 수 있는 학습체험장에서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진도개테마파크에는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강아지 놀이터, 미니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시설, 진도개 홍보관과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진도개테마파크에는 오는 10월 말까지 어린이들이 자연 재료를 활용에 놀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옛이야기 창작 그림책' 발간

월출산·왕인박사 소재 2권

2027년까지 16권 출간 예정

영암군이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배경으로 기획·창작한 그림책 2권을 내놓았다.

영암군은 '2025 별빛책마당' 행사에서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진행한 창작 그림책 '나는 기다려요' (오치근·오은별), '별을 찾는 아이' (김진·오치근) 출판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나는 기다려요'는 영암 월출산 큰바위얼굴을 모티브로, 모든 생명이 하나의 빛에서 태어나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려며 기다림·화해·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별을 찾는 아이'는 아빠와 별뿔뿔을 보러 간 주인공 온이가 왕인박사 책걸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별에 '왕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다. 왕인박사의 가르침과 지역의 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소개돼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출판기념식에는 오치근·오은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독자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가족 단위 행사 참가자들은 월출산국립공원 자락 아래서 문학을 즐겼다.

군은 두 그림책 외에도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열두 번 노는 날' 배위름 별천지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 배정중은 용기촌 사람들' 등 4권을 출간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27년까지 총 16권 1월의 영암 이야기 그림책이 발간될 예정"이라며 "그림책으로 영암을 사랑하는 분들, 아직 영암을 잘 모르는 분들 모두 영암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어선 8000여척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

완도군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8000여 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한 조치다.

지원 품목은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과 허리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로, 출입항 신고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선 8000여 척으로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1차 10월 말까지이며 예산이 남을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라며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에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